

5-10-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목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에베소서 1:17-23

말씀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유업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된 교회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유업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며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의 기쁨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니라.”(엡 1:9-10)

또한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 즉 봉인을 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 받은 것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어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유업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을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엡 1:17-19)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를 지어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엡 1:20-21)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자신이 세우실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 1:22-23)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지상에 단 하나뿐인 것입니다. 지상 여러 곳에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물리적인 장소와는 관계 없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나라나 민족이나 언어와 상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단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게 주심으로써 교회를 그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어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브가 아담과 한 몸이 되어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에 있는 교회가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때가 찰 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 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들어올리시는 휴거의 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양의 혼인식을 통하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물리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살전 4:17).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늘 문을 여시고 나타나실 때에도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 광경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계 19: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 채로 불못에 던져 심판하실 것입니다(19:19-20)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통치하시는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돕는 배필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이 다스림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딤후 2:12)**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 되셔서 영원무궁토록 교회와 함께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들을 채우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